

디지털바이오텍, KIST와 진통제 공동개발

메디프론의 자회사 디지털바이오텍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경병증성 진통제 개발>의 연구 파트너로 선정돼 위탁연구 계약을 했다고 7월4일 발표했다.

KIST가 국책 과제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신경병증성 진통제는 Merck, Amgen 등 다국적 제약기업들이 차세대 진통제로 개발하고 있는 칼슘채널 작용 신규 화합물로, 세계 시장규모가 42억달러(4조2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김영호 디지털바이오텍 연구소장은 “KIST의 신약개발 능력과 디지털바이오텍이 보유한 효능측정 모델, 임상시험 노하우 등을 결합하면 빠른 시일에 세계적인 신약을 개발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바이오텍은 다국적 제약기업인 독일 Grunenthal에 비마약성 진통제 등 2건의 신약 기술을 이전했으며 <TRPV1 수용체>를 이용한 진통제는 유럽에서 임상시험을 앞두고 있다.

<화학저널 2008/07/04>